

이 내용은 일본『노동위생』지에 게재된 노동위생활동에 관한 Q & A를 번역한 것입니다. 산업보건관계자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 광 륙

신입사원에 대한 보건교육



신입사원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효과적인 보건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신입사원에 대한 보건교육은 일하다가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한 지식과 필요한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건강을 생각해 합니다.

신입사원은 위생 문제, 보건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전에 교육의 목적, 위생관리 목적을 쉽게 설명하여 건강을 지키려는 분위기에 싸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2. 신입사원은 “모르고 있다”, “잘 못한다”라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입사원은 아무것도 모르며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려면 전문어를 쓰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강사가 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3.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화학공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이로 인한 건강장애,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대책, 보호구의 착용과 훈련 등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또 만일의 경우 응급조치를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작업자세를 포함한 요통 방지 등이 주 항목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본 지식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의 할 것은 너무 원칙에 치우치지 말고 실시 가능한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건 관리뿐 아니라 공해, 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오감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교육방법을 생각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강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접하는 기회를 주어 감각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화학물질은 명칭을 말하는 것 외에 실물을 보이고 유해성을 설명하고 보호구를 착용시키는 것 입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실제로 소리를 들려주고 보호구의 효과를 확인시킵니다.

체험이 불가능한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관계 비디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어떻든간에 강의라는 것은 일방 통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수강자에게 물어 답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Q&A

5. 교육장소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교육은 강의실에서만 하지 말고 옮겨가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작업장에서의 교육은 효과적입니다. 국소배기 등의 방지설비도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선배들의 작업을 보면서 올바른 화학물질의 취급방법이나 중량물 취급시의 작업자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기간중의 기분 전환도 되는 것으로 작업장에서의 교육을 권합니다.

6. 강사는 적임자를 잘 선정합니다.

강사는 보건관리자 이외에 각 부문의 관계자가 담당하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됩니다.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의 또는 산업간호사가 담당하면 실천적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업장을 잘 알고 있는 계장, 반장 등이 관리감독의 사례를 들어 체험담을 설명하면 효과적이며 교과과정에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효과를 확인합니다.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의 일변도가 아닌 질문응답을 하여 효과를 알아냅니다. 보호구에 대해서는 실제로 착용시켜 보아야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수강자를 몇 개의 분단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과제를 주어 해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를 발표하게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하면 교육 효과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법도 됩니다.

8. 맷음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현대의 젊은이들의 기질이 전과 달라져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 ㄱ. 동기를 부여한다.
- ㄴ. 흥미 있는 교과과정을 짠다.
- ㄷ. 일방통행식이 아닌 수강자의 발언에 중점을 둔다.

어쨌든 교육의 효과는 담당자의 열의와 연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